



돌려받은 핸드폰 사례하려다 1억원 당첨!

마음을 잘 쓰면 뜻하지 않은 횡재도 돌아온다. 잃어버린 핸드폰을 되돌려받고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슈퍼에 들렀던 전남 완도군의 안모(33세)씨. 즉석에서 긁어본 자치복권에서 1억원이 터졌다. 1억원 당첨!

“제가 원래 물건 같은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꼼꼼히 챙기고 제 것 뿐만 아니라 동행하는 사람의 물건도 챙겨주기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이런 안씨가 자신의 물건을, 그것도 항상 손에서 떨어질 날이 없는 핸드폰을 잃어버린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안씨는 그날 왜 핸드폰을 바지 호주머니 안에 두었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한다.

“항상 손에 들고 다니지 않으면 가방에 넣고 다닙니다. 호주머니속은 당연히 앓았다 일어날 때 신경쓰지 않으면 물건이 빠져나오기 일쑤라는 것은 누구나다 아는 일 아닙니까.”

그 일은 안씨에게 좋은 일이 있게 하려고 누군가가 안씨를 흘렸다고 밖에는 설명이 안된다고 그는 설명한다. 이유인 즉 핸드폰을 잃어버리자마자 당장 자신의 전화번호를 눌렀고, 한 아주머니가 전화를 받아 그 장소로 찾으러오라고 했다. 반가운 마음에 안씨는 근처 슈퍼에서 조그만 선물을 샀고, 계산대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자치복권 세트가 눈에 띄자 10장을 긁어보았다. 앗! 이게 꿈인가? 생신가? 1등이 나왔다. 5000만원짜리 두장이 나란히 붙어있었다.

“버스에서 주인잃은 핸드폰을 봐도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은데도 잘 보관해 돌려주시는게 고마워 답례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런 행운이 돌아오다니 꼭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복권을 잘 사지 않았는데 그날은 괜히 사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많아요.”

10장의 복권은 핸드폰을 찾아 내려오는 길에 숨도 돌릴 겸 길가에 앉아 긁었는데 5번째 긁은 것에서 잇달아 터져나왔다. 여하튼 그날 안씨는 하루종일 귀신에 홀린 것처럼 정신이 멍했다. 